

대강절 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ADVENT

주후 2022년 12월 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1 장 “이새의 뿌리에서” (통일 10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6 번 구주 강림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Isaiah) 11:1-10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생명의 양식을”	찬양대
설 교 Sermon	“물이 바다 덮음 같아” (As the Waters Cover the Sea)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물이 바다 덮음 같아”	다같이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개역개정 사11:9)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NIV Isaiah 1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4 (주일)	12/5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토)
	대하3:4	대하5:1-6:11	대하6:12-42	대하7	대하8	대하9	대하10
본문	요일3 나2 눅18	요일4 나3 눅19	요일5 합1 눅20	요일1 합2 눅21	요일1 합3 눅22	유1 습1 눅23	계1 습2 눅2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2/7수 오후7:30)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일4:7-12)
토요 새벽기도회(12/10토 오전6:30)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시104:24-35)

지난 주일(11/27) 말씀 – 대강절 첫번째 주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1-5)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 요즘, (보통) 한 선수가 경기 도중,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은 (대략) 3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전체 시간(90분)에 비하면, 고작 1/30에 해당하는 이 짧은 시간(3분) 안에 경기의 모든 승패가 다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일수록,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나머지 87분 동안에도, 쉼 없이 움직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자신에게 주어질 그 시간(3분)을, 더욱 값진 시간으로 이 어갈 수 있고, (또한) 팀의 승리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 (주목 받지 못하는) 87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에 따라, 결정적인 시간 3분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사2:1)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무명에 가까운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말일)의 소망은 다름 아닌, 1) 예배(Worship)와, 2) 하나님의 말씀(Word)과, 3)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Peace)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흰 옷을 입은 자(계7:14) 즉,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2)하나님의 말씀(율법)을 들음으로, 주의 길을 행하며, 3)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Peace)를 꿈꾸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연습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